

아이웨이웨이 32억 명작 광주 온다

가로 세로 10m 대형작 '필드' 디자인비엔날레에 출품 결정

중국의 저명한 설치 미술가 겸 인 권운동가인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2일~10월23일) 공동 예술총 감독 아이웨이웨이의 32억원대 명작이 광주에 온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30일 "최근 구급생활을 하다 보 식으로 풀려난 아이웨이웨이의 작품을 디자인비엔날레 출품작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이웨이웨이는 몸은 풀려났지만 1년간 베이징을 떠날 수 없으며 인터넷과 인터뷰도 할 수 없어, 디자인비엔날레 참여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재단은 승승삼 감독과 이번 전시를 기획했던 아이웨이웨이의 '예술적 색채'를 담기 위해 대안적으로 그의 작품을 특별한 형식으로 선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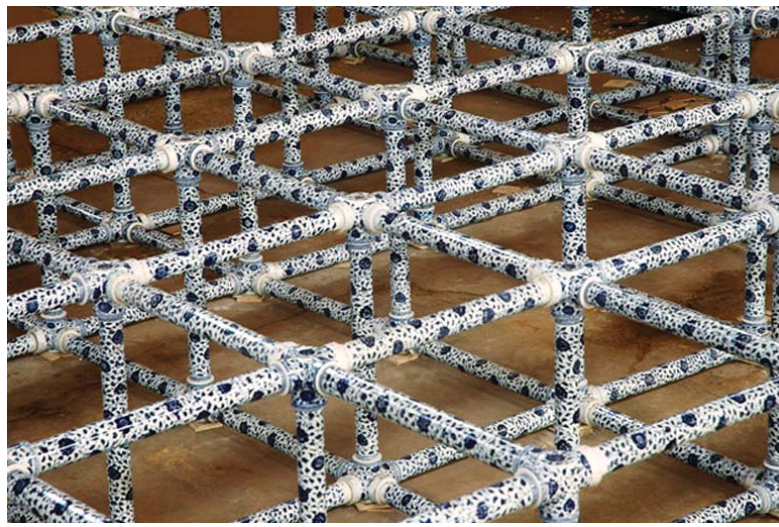
기로 했다.

아이웨이웨이는 최근 런던소더비에서 자신의 작품 '해바라기씨'를 6억3천만원에 판매하는 등 국제 화단에서 주목받는 인기 작가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 출품된 작품은 그가 지난해 스위스 바젤에서 발표한 가로 세로 각각 10m에 달하는 대형작품 '필드'(Field·사진)다.

평나라 도자기제작기법으로 만들어진 설치작품이며, 검은 원을 그려 넣은 백자 관을 한자 '전'(田)자 형태로 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49개의 구조물을 다시 하나로 연결해 현대 사회의 대량 생산 형태의 규칙성과 효율성 등을 묘사했다.

대도시의 상징인 배수장치의 관과 대형 건축물 건설을 위한 비계 등의



필드

형태와 유사하며, 전통과 현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재단은 디자인비엔날레 기간에 옹동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제5전시실에 이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아이웨이웨이는 베이징 소재 CAAW 공동설립자 겸 예술감독(1997), 진화건축 예술공인 프로젝트

큐레이터로 활동했고, 건축스튜디오 'FAKE Design'을 설립해 2008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 설계를 맡았다.

그는 지난 4월 세금 탈루 등의 혐의로 공안에 연행됐는데, 사법과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그의 인권운동을 탄압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페스티벌 오! 광주 브랜드 공연 축제'

개막작은 '자스민 광주'

다양한 공연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페스티벌 오! 광주 브랜드 공연 축제'가 2일 '자스민 광주' 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지난해까지 열렸던 광주국제공연예술제를 대체하는 행사는 오는 31일까지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계속된다. 무대에 올러지는 작품은 모두 8편이다.

▲광주 브랜드 공연 '자스민 광주' 이번 축제에서는 광주 브랜드 공연 작품 '자스민 광주'(2~3일 오후 6시)가 첫 선을 보인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이 6억 5000여만원(에디터리 공연 비용 포함 3억원 포함)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자스민 광주'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과 튀니지, 중동 자스민 혁명 과정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는 음악중심의 총체극이다.

광주를 대표하고, 세계에 내놓을 작품을 불과 4개월만에 제작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일단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지켜보는 눈들이 많다.

작품은 남도 씻김굿을 축으로 하고 있으며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한 주인공이 씻김을 통해 다시 살아나 현대의 무녀와 소리꾼, 연주자, 관객이 함께 무대를 이끌어간다.

총연출은 극단 갯돌 대표 손재오씨, 음악감독은 원일씨가 맡았다. 또 작창 및 소리 구성은 그룹 '푸리' 보컬리스트 함승석씨가, 무대미술은 오윤근 상명대 무대디자인 전공 교수가 참여했다.

▲국내·광주 대표 공연 국가 브랜드 공연 작품으로는 국립무용단의 '코리아 판타지'가 공연된다. 부채춤, 장고춤, 오고무 등 한국 춤의 하이라이트를 무대화한 대형 작품이다.

사다리춤임연연구소의 '보이책'은 11명의 배우의 움직임과 11개의 나무 의자, 피아노의 음악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에든버러 프린지 10에 선정되는 등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더 팻트론 컴퍼니의 복합장르물 '카르마'는 난버릴 퍼포먼스로 한국무용, 동영미술, 무대 영상작품

오늘 빛고을문화관서 전야제...31일까지 8편 공연



'자스민 광주'

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두바이 축제 '젠티안 오브 프린지', 남미 투 어 등을 거치는 등 예술성을 인정 받고 있다.

지역 브랜드 참가 작품은 공모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불이페 신명은 광주 5·18을 상징하는 대표 작품 '일어서는 사람들'을 공연하며 타악그룹 '일우'는 드럼과 모듬북 등 타악기들의 가락과 물(水)과 불(火)이 어우러진 퍼포먼스 '인수화풍'을 무대에 올린다.

그밖에 극단 진달래 폐녀의 '몽연', 김미숙부리한국무용단과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이 함께 무대에 올리는 '연의 노래'도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1일 오후 8시에는 빛고을시민문화관 앞 특설무대에서 굿패 마루 퓨전국악그룹 '늘숨', '루트머지', '아이리아' 등이 출연하는 전야제

▲광주 브랜드 공연축제 공연

| 날짜 | 공연명 | 단체 |
|--------|----------------|------------|
| 2~3일 | 자스민 광주 | 광주문화재단 |
| 9~10일 | 일어서는사람들 불이페 신명 | |
| 12~13일 | 인수화풍 | 타악그룹 일우 |
| 16~17일 | 몽연 | 극단 진달래 폐녀 |
| 19~20일 | 연의 노래 | 김미숙부리한국무용단 |
| 23~24일 | 보이책 | 사다리춤임연연구소 |
| 27일 | 코리아 판타지 | 국립무용단 |
| 30~31일 | 카르마 | 더 팻트론 컴퍼니 |

공연장소는 빛고을 시민문화관

가 열린다.

행사기간 중에는 빛고을시민문화관 전시실에서 사진작가 김은주씨의 5·18 어머니 사진전과 포크가수 한보리의 노래 전시회, 이탈리아 프리울리 모자이크 워크숍 등이 열린다. 티켓 가격 R석 2만원, S석 1만5000원, A석 1만원, 문의 062-670-74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꽃, 목판에 활짝 피었네

박구환 개인전 3~10일 신세계갤러리



'만개하여'

나뭇결이 살아 있는 목판화 소묘기법으로 서정적인 풍경을 선사하고 있는 판화가 박구환씨가 오는 3일~10일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꽃과 그림자는 한몸이다'를 주제로 목판화가 주는 투박한 미감과 파스텔톤 색채가 어우러진 신작을 선보인다. 또 이번 전시에 맞춰 지난 20년간 발표한 작품을 소개하는 책도 제작했다.

출품작 '피어나다' '만개하여'

시리즈 등 사물의 그림자를 표현했고, 간결한 꽃의 표현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또 한적한 풍경을 담은 '한가로운 마을' 시리즈, 화병 연작 '향기' 등 판화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다.

조선대 미술학과를 나온 뒤 뉴욕, 동경, 서울, 광주 등에서 여러 차례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국제 판화교류전, 대만 국제미니판화 초대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열쇠 꾸러미에 담긴 '삶'

이창수 시인 두번째 시집 '귀속...' 펴내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은 시를 주로 써온 이창수(41·사진) 시인이 6년 만에 자신의 두 번째 시집 '귀속에서 온다'(실천문학사 펴냄)를 출간했다.

이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이사를 다닐 때마다 하나 둘 모아둔 열쇠 꾸러미를 보며 느낀 삶의 애환을 담은 '열쇠 꾸러미' 등 50여 편의 시를 4부로 나누 엮었다.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유년과 청년, 자연과 도시, 관념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에 선 느낌을 주로 노래하고 있다. 어느 곳으로도 온전하게 편입될 수 없는 시인은 이 소외의 공간에서 고통받지만 성급한 화해나 타협을 꾀하지 않는다.

보성 출생인 이 시인은 광주대 문예창작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광주대, 중앙대 등에 출강했다. 2000년 '시안'으로 등단해, 시집 '물오리사냥'을 냈다.

4/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해설을 쓴 문학평론가 장석주씨는 "이창수의 시 세계는 어떤 도덕이나 이념의 주장보다는 사실의 관찰이 돋보이는 현실주의의 세계에 속한다"며 "그의 시는 물물(物物)들의 현존을 쓰다듬는다"고 말했다.

이창수 시인 두번째 시집 '귀속...' 펴내

신안 출신 김환기(1913~1974년) 화백의 작품이 서울옥션 경매에서 15억원에 낙찰됐다.

서울옥션이 지난 29일 신사동 서울옥션 강남점에서 진행한 미술품 경매에서 김환기의 '항아리와 매화'가 경

합 끝에 15억원에 낙찰돼 이날 경매 최고가를 기록했다. '항아리와 매화'는 1955년 작으로, 작가의 프랑스 파리 개인전 당시 현지 언론이 대표작으로 소개했던 작품이다. /연합뉴스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상무점

1관 쿵푸팬더2 (전세)

2관 트랜스포머3 (12세)

3관 씨니 (15세)

4관 정무문:100대1의전설 (15세)

5관 트랜스포머3 (12세)

6관 트랜스포머3 (12세)

7-10관 풍산개 (18세)

리뉴얼 BIG EVENT

리뉴얼오픈기념 무료 상영회 (홈에이지 참조)

매달매달 밤마다 공개

리뉴얼오픈기념 무료 상영회 (홈에이지 참조)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개 이벤트 팝콘 증정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오남최대주장 / www.cinuso.kr

하남점

1관 트랜스포머3 (12세)

2관 트랜스포머3 (12세)

3관 씨니 (15세)

4관 씨니 (15세)

5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

6관 정무문:100대1의전설 (15세)

7관 쿵푸팬더2 (전세)/풍산개 (18세)

8관 쿵푸팬더2 (전세)

9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10관 트랜스포머3 (12세)

트랜스포머3 (12세)

구. 런던역국사거리

☎ 1544 - 0600

MEGABOX

M관 트랜스포머3 (12세) **최고급관**

2관 트랜스포머3 (12세)

3관 풍산개 (18세)

4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

5관 트랜스포머3 (12세)

6관 씨니 (15세)

7관 트랜스포머3 (12세)

8관 쿵푸팬더2 (전세)

9관 트랜스포머3 (12세)

정무문:100대1의전설 (15세)

트랜스포머3 (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치타워, 황금주치빌딩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1관 트랜스포머3 (12세)

2관 씨니 (15세)

3관 트랜스포머3 (12세)

4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풍산개 (18세)

5관 쿵푸팬더2 (전세)

6관 정무문:100대1의전설 (15세)

7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

트랜스포머3 (12세)

8관 트랜스포머3 (12세)

9관 트랜스포머3 (12세)

색깔있는 영화한편 *www.cinuso.kr

씨너스전대대D(4K)상영!!